

# 폐업기업 대표의 불안과 우울 및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과 재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금종\*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석사과정

## 국 문 요 약

매년 수많은 기업이 폐업하고 있으며 그 숫자만큼 폐업 기업의 대표가 실패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도전 활성화 연구(백필규,2011)에 의하면 폐업이나 부도의 형태로 실패하는 기업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은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과 1998년의 사이로 보고 있다. 부도 기업의 숫자가 외환위기때는 약 4만사, 1999년부터 2010년까지도 평균 4만 7천여사가 발생하였고 폐업기업수는 부도기업보다 훨씬 많아 매년 80~90만개 전후의 기업이 실패하고 있다.

최근 IBK경제연구소의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김나라,2017)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창업기업은 연평균 77만개사, 폐업기업은 69만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OECD 주요회원국 17개국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오랜시간 대한민국 사회는 사업실패는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연대보증이나 재기가 어려운 구조로 인하여 폐업기업의 대표가 실패하면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지고 본인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실패기업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보다 재기를 원하는 기업인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할 수 없다. 창업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업가들은 평균 2.8회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기업가는 1.3회의 실패 경험을 보유 한다.(중기청, 2014)

폐업기업 대표의 재무적 손실의 규모와 관계없이 불안과 우울이 낮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기업가가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과 재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재기 기업인과 정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재기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폐업기업 대표에게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와 국가의 창업지원이 고용창출, 매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재기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핵심어: 폐업기업 대표 손실, 불안과 우울, 회복탄력성, 삶의 질, 재창업 의지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정부가 2010년부터 재도전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재창업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재창업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많은 지원책이 재도전 기업인의 특성에 맞춰 진행되기 보다는 획일적으로 양적인 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실패기업인들의 많은 분들이 실전 사업 위주의 경영을 하였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행정적인 부분에 익숙치 않고 적용하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또 실패기업인

들이 재도전과정에서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유용한 재창업 교육프로그램’으로 ‘재도전에 대한 자신감 회복 및 심리치유’를 49%나 꼽았다.(김나라, 2017) 이 같은 수치는 심리적,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패기업인에 대한 감정적 관리의 필요성을 분명히 부여준다. 따라서 이들이 실패를 딛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창업하겠다는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에 앞서 감정적, 심리적 케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동안의 창업 관련연구는 다양한 창업 영역에서 이뤄져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 연구가 창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반면 창업의 부정적 측면인 실패를 다루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업실패라는 부정적 이미

지 때문이다.(김형호, 2016, McGrath, 1999 ; Politis & Gabriellsson, 2009) 또한 기존 연구는 창업 성공의 법칙이 무엇이고 실패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 집중돼 왔으나 재무적 비용이나 성과 이외에 심리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사업실패자의 감정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다. 또 사업실패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전화위복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류주한,2015) 본 연구는 사업실패자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재기에 의지를 갖고 재창업을 실행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감정적 매카니즘 이해와 케어의 필요성에 착안하고 있다. 실패 기업인의 재무적 손실과 비재무적 손실이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이부분이 실패기업인의 삶의 질과 재창업의지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다양한 가설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폐업기업 대표의 사업 실패후 감정 매카니즘을 규명하고 감정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심리적 변화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실패를 자산과 역량으로 삼을 수 있는 건강한 재창업 생태계의 조성과 정부의 도움을 받은 재창업 기업인들이 다시 매출과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가설적 모형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구성에 사용된 연구변수들은 폐업기업 대표의 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 불안, 우울, 회복탄력성, 삶의 질, 재창업 의지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폐업기업 대표의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은 불안과 우울 및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과 우울 및 회복탄력성은 삶의 질과 재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따른 연구 가설을 다음과 같다.

- 가설 1. 폐업기업 대표의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은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폐업기업 대표의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폐업기업 대표의 불안과 우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폐업기업 대표의 회복탄력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폐업기업 대표의 불안과 우울은 재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폐업기업 대표의 회복탄력성은 재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1] 연구의 개념적 틀

II. 연구 배경

본 연구는 폐업한 사장님들의 정신적 치유와 재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재기기업인 힐링캠프’ 수료생들과 정부의 재창업 지원프로그램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폐업기업 대표의 불안과 우울 및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과 재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재창업을 완료한 폐업기업 대표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재창업을 포기하거나 하지 못한 대표들의 설문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2.1. 사업실패의 정의

사업실패의 정의는 연구자들의 활용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최근의 국내연구에서, 정대용,김재형 (2015) 는 창업실패의 개념정의를 창업을 통해 조직한 사업이 실패하는 일련의 과정(Gartner & Mitchell & Vesper, 1992)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창업실패(Entrepreneurial Failure)를 사업실패(Business Failure)로 간주했다. 국내에서 사업실패의 개념은0첫번째로 사업의 중단(discontinuance of business)으로 정의한다. 두 번째는 공식적 파산(formal bankruptcy), 세 번째는 사업의 처분(disposed of to prevent further losses),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사업운영의 실패(failing to make a go of it)로 본다.

2.2. 불안과 우울

폐업기업 대표의 불안과 우울은 외부환경의 변화로 큰 재무적 손실과 비재무적 손실을 입은후 나타나게 되는 중

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불안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 중의 하나로 불안의 완화나 해소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또한 폐업기업 대표의 자기 비하와 상실감 등은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스스로를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우울에는 자아존중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는 폐업기업 대표는 기업의 폐업과정으로 인하여 최고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폐업기업 대표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고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폐업기업 대표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지지를 들 수 있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변화된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기업 대표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므로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낮추어 폐업기업 대표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고 재창업 의지를 높일 수 있다.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가장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는 폐업기업 대표에게 적용해볼 때 폐업기업대표의 불안과 우울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와 그 영향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 2.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유아교육,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개념이며, 극복력, 탄성, 탄력성, 회복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회복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도 높이 튀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탄성이 다르다.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탄력성으로 다시 튀어 오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거나 커다란 성취를 이뤄낸 개인이나 조직은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세상일을 긍정적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면 회복탄력성은 놀랍게

향상된다. 회복탄력성이란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곳곳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비인지능력 혹은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폐업기업 대표에게 회복탄력성은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창업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 이다.

## III. 연구방법

###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폐업기업 대표의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이 불안과 우울 및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과 재창업 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폐업기업 대표의 재기를 도와주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설립된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재기 중소기업인 힐링캠프’수료자와 사업 실패후 다른 진로를 찾거나 정부 재창업사업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재창업을 한 기업가들과 달리 사업 실패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재창업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진로를 찾아 창업생태계에서 멀어져버린 폐업 기업 대표자들을 최대한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3.3. 연구 도구

#### 3.3.1 불안

불안은 Zung이 개발한 불안척도(Zung Self-Rating Anxiety Scale, SAS)를 Lee가 번안한 도구(Korean form of Zung Self-Rating Anxiety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의 역문항이 있다. 응답은 4점 Likert 척도(1=‘아니다’, 2=‘때로 그렇다’, 3=‘자주 그렇다’, 4=‘항상 그렇다’)로 범주화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0~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폐업기업 대표는 재무적 손실과 비재무적 손실로 인하여 개인의 모든 환경 변화로 매우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이 요인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 3.3.2 우울

우울은 Radloff가 개발한 20문항의 Center for Epideniologic Studies Depression(CES-D) 척도를 Kohout 등이 단축한

CES-D 11 Iowa version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4점 Likert 척도(0=‘극히 드물다’, 1=‘가끔 있었다.’, 2=‘종종 있었다.’, 3=‘대부분 그랬다.’)로 범주화되어 있다. 2개의 역문항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0~3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3.3.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회복탄력성 지수 KRP(Korean resilience quotient)-53을 중심으로 5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스스로의 감정과 충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 주변 사람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력,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습관인 긍정성이라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각각 3가지 하위요소를 지녀 모두 9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자기조절력 = 감정조절력 + 충동통제력 + 원인분석력  
 대인관계력 = 소통능력 + 공감능력 + 자아확장력  
 긍정성 = 자아낙관성 + 생활만족도 + 감사

**3.3.4 삶의 질**

삶의 질은 Euro Quality of Life(Euroqol) Group에 의해 개발된 EQ-5D를 사용하였다. EQ-5D는 현재의 건강상태와 심리상태를 묻는 5개의 객관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영역은 운동능력(mobility; M), 자기관리(self-care; SC), 일상생활(usual activities; UA), 통증/불편(Pain/discomfort; PD),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 ; AD)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3점 Likert 척도(1=‘전혀 문제없음’, 2=‘약간의 문제 있음, 3=심각한 문제 있음’)로 범주화 되어 있다.

**3.2. 측정도구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폐업기업 대표는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재기경영자 힐링캠프’ 수료자 및 진로를 바꾼 폐업기업 대표, 정부 재창업 과제에 지원한 폐업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폐업기업 대표가 폐업시 손실 규모에 관계없이 어떠한 요소들로 인하여 삶의 질과 재창업 의지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은 통해 폐업기업 대표의 재무적 손실보다 비재무적 손실이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주었고 내적 요인

들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불안과 우울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으며 재창업 의지도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으며 재창업 의지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폐업기업 대표의 재창업 지원은 심리적 치유와 회복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 선행된 이후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들을 통해 폐업기업 대표들의 심리 변화와 회복 및 치유, 그리고 회복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 삶의 질과 재창업 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폐업기업 대표중 많은 분이 실패를 극복할 수 없는 요소로 인식하고 재창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며 노출을 회피하는 성향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자들을 연구하지 못함에 대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김형호(2016). 사업실패경험이 재창업의지와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세연(2015). 소상공인의 자기 결정성이 재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대위(2018).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위한 기업가정신 고양 및 정부 금융지원 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학진(2018). 재창업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제화(2013). 재창업가의 창업실패와 대처방안에 관한 근거 이론적 분석,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하경(2017). 사업실패에 대한 개인평가와 손실경험이 재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나라(2017).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 IBK경제연구소.  
 김재형(2016). 사업실패에 대한 평가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백필규(2011).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제도 전 활성화 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오영경,황선영(2017) 중년 여성의 불안과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디지털복합연구, 15(10), 579-588.  
 최서규(2014) 노인의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기경희,김광수(2018). 회복탄력성 연구 동향과 과제: 회복탄력성 개념과 척도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17(2), 157-175.  
 배영임(2014). 재창업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3), 13-22.  
 All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rocess 5, 179-211

- Bates, T.(1995). A comparison of franchise and independent small business survival rates. *Small Business Economics*, 3, 377-388
- Cooper, A. C., & Dunklberg, W. C.(1987). Entrepreneurship and path to business ownership.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7, 163-168
- Hosmer. L. T.(1995). Trust: The connecting link between organizational theory and philosophical ethic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2), 379-403
- Jeon, D, Y.(2011). A Study of the Effert to the Technolgical Inovation Support System for Venture Business on Entrepreneurship and Techolgical Innovation,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Kirkwoodm J.(2009). Tall Poppy Syndrome: Implication for Entrepreneurship in the New Zealand. *Journal of management & Organization*, 13(4), 366-382
- Lafonataine, F., & Show(2014). Ser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atudent entrepreneurial intention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0(0), 658-668
-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n enetneurneurial pre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 7-23
- Shane. S.(1996). Explaning vriation in rate of etenetneurship in the Unites States:1899-1988.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 129-140